



보도 일시	2022. 5. 6.(금) 15:00	배포 일시	2022. 5. 6.(금) 15:00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대외인니협력팀	책임자	팀 장 송민철 (044-200-3360)
		담당자	사무관 이윤경 (044-200-3189)

## 인니 국민협의회 의장, 행복도시 현장 방문

### - 인니 신수도 건설을 위한 모범사례로 행복도시 견학 -

-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밤방 수사티요(Bambang Soesatyo) 의장 일행이 6일(금)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청장 박무익, 이하 행복청)을 방문했다.
-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국민협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,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제정('22.1)과 신수도청 청장·부청장 임명('22.3.) 등 인니 수도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수도이전 추진배경과 행복도시의 개발경험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.
- 밤방 수사티요 의장은 행복청 협력관을 중심으로 인니 주재 공공기관·기업들이 참여한 '인니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'의 활동을 후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한 「한-인니 협력 네트워크(IUI)」의 대표를 맡고 있다.
- \* IUI(IKN Untuk IKN) : Indonesia-Korea Network Untuk Ibu Kota Negara
- 의장 일행은 행복도시 홍보관을 방문하여 도시건설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자율주행 차량 탑승 등 행복도시 현장을 견학하였다.
-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은 박무익 행복청장과 한국의 다양한 신도시 개발, 행복도시 건설 과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, 인니

신수도 건설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공공해 질 수 있도록 국민협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.

- 또한,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방 수사티요 의장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세종을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계획 등을 설명하고, 양 국 국회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□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“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에서 행복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과정이 한국의 행복도시 사례와 유사하여 배우고 참고하기에 적합하기 때문”이라며

- “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의 본격화에 따라, 행복도시의 사업 본보기 (모델)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참고로,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를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총 40조 원, 150만 명 규모의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며,

- 행복청은 2020년부터 협력관 파견, 현지 민관협력 연결망(네트워크) 구축, 기술자문 등 신수도 조성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.